

2012. 11. 28  
Lecture 31

## 2 칼빈이 제시한 성경의 신빙성

유태주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 1. 들어가는 말

오늘의 세계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우선 경제적인 위기이다. WTO 경제체제는<sup>1)</sup> 경제협력의 시대라기보다는 강대국에 의한 효율적인 경제 침략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 결과 매일 3만 5천 명이 짚주립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위기이다. 지금도 강대국들은 소위 '분리와 지배'(divide and rule) 정책으로 약소국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하여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고 하나, WTO가 약소국의 경제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약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기구임이 현실이다.

한반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1세기가 넘도록 강대국의 교활한 분리와 지배정책에 속아, 한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남북과 동서와 여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 짓밟히고 윤리적으로도 그 위기가 심각하다. 인류는 이른바 문명의 시기에 오히려 인신매매가 성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양에서 비롯된 제국주의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와 온 세계의 약소민족들을 철저하게 착취하였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팔려 나간 노예의 수도 약 2,000만 명에 달하고 그 삼 분의 일은 여성들이었다.<sup>2)</sup> 노예매매에 만족하지 못한 서양제국들은 세계를 식민지화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세계의 약소민족과 약소국가들이 사실상 완전히 강대국들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그 피해를 본 대표적인 경우이다. 21세기에 와서도 강대국들의 약소민족과 국가 지배는 형태를 달리할 뿐 계속되고 있다. 노동 착취의 노예매매에서 성노예매매(性奴隸賣買)로의 전환도 그 하나의 경우이다. 더욱 통탄할 일은 세계 각국이 거의 모두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버린 서양제국들의 과거 역사를 모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생명을 경멸하는 최대의 문제 역시 인간 자신의 피에서 나온 인간복제 문제다. 배아줄기세포라는 전문 용어의 베일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초기부터 살해되고 있거나 조작되어 인간의 장기가 소나 돼지의 내장처럼 매매되는 가증한 시대가 된 것이다.<sup>3)</sup>

이제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이처럼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은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나, 그 근원적인 원인은 근대 이후 세계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서양제국들이 성경말씀을 불신하고, 구원

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생명의 복음은 아시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을 향하여 가는 길에 유럽을 복음화하여 사도들과 16세기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18세기에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음은 크게 왜곡되지 않고 지켜져 왔다. 이렇게 18세기는 아름다운 신앙부흥의 세기였으나, 동시에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요, 계몽사조(the enlightenment)의 시대이기도 하다. 칸트(I. Kant, 1724–1804)는 이 세기에 사상적 주역을 담당하였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 이후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구원을 확실하게 말살한 사람이 칸트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자신의 의도는 그 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칸트는 순수이성의 인식영역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위와 관계되는 실천이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간 주체 중심의 분석을 한다. 그 결과 칸트의 윤리관은 인간 의식 내부에 새겨진 보편적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실천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라 한다. 도덕적인 인간은 자신의 충동이나 경향성(inclination)이 아닌 의무(duty)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행동이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도덕률을 지키기 위한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가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도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동하는 황금률’이며,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라 하여 모든 행동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았다. 이렇듯 칸트의 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성에 따라 보편적인 도덕률에 맞는 자율적인 자유의지의 사용이다. 후에 그는 이러한 윤리에 기초하여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저서 속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훈을 거부하고 그의 윤리적인 종교관을 주장한다.<sup>4)</sup>

2. 강석인, 「만리장성에서 아우슈비츠까지」(서울 : 고려원, 1996), 251–253.

3. cf. 그레고리 펜스 편, 류지한 외 역, *Flesh of My Flesh : The Ethics of Cloning Humans*, 「인간복제의 윤리학」(서울 : 도서출판율령, 2002).

4. 한상화, “포스트모더니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3).

칸트는 모든 인식 대상들을 ‘현상계’(phenomena)와 ‘본체계’(noumena)로 이해하였다.<sup>5)</sup> 현상계는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현상들로 이루어져 경험 가능한 인식의 세계로서, 과학적 지식은 여기에 속한다. 본체계는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으로서, 물(物) 자체(things in themselves), 실제, 신, 자유, 인간의 영혼 등을 가리킨다. 본체계에 대해서 칸트는 불가지론을 취하며, 순수이성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칸트의 이원론이 기독교신학에 주는 의미는 종교의 대상이 더 이상 사실의 영역에 관계되지 않고, 신앙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는 자유주의신학에 도입되어 신학의 영역을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이원론적 구도에서 가치판단만을 신학의 영역으로 보게 된다. 기독교가 사실을 배제한 가치로만 전락하게 된 것이다.<sup>6)</sup>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성으로 대체시킨 칸트를 비롯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옛 뱈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하)라고 질문하였듯이, 인본주의(humanism) 사조는 하나님 말씀의 신빙성과 권위에 대한 불신과 배신에서 출발한다. 성경말씀을 떠난 인본주의사조는 불신과 사이비과학으로 구성된 인본주의의 바벨탑이라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신학 작업에 있어서 성경말씀을 가감 없이

5. Immanuel Kan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Norman Kemp Smith (London : Macmillan and Co., 1958), 서문(preface) 17–33, 257–275. 칸트는 뉴턴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永遠(超越)과 時間(現世)을 二元화시켰다. “칸트에 있어서 인간은 신을 직접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pflicht)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성의 정언적 명령(Kategorischer Imperative) 앞에서 그의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도덕적 인간은 이성적인 방식으로 (vernunftigerweise) 신의 자비와 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1793.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94) 부록 : “칸트에 있어서 근본학과 신,” 284.

6. 한상화, op. cit.

신뢰하는 과학적 방법이 중요하다. “과학의 본질은 그 정확성에 있다. 과학적 연구가 정확하려면 어떠한 자료(data)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과학적 실험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모든 자료에 똑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sup>8)</sup>

그러므로 성경관의 재정립이 구원의 신앙 확립과 더불어 세계적인 종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임이 확실해진 이상, 지금 우리는 사도적인 성경관의 소유자요, 현대 세계의 세계관을 제시한 칼빈의 성경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관의 역사와 그리스도관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칼빈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경관과 그리스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16세기에 재확립했다.

## 2. 성경관의 역사와 그리스도관의 역사

정확무오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요 3:16 ; 딤전 2:5).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 신학의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과 18세기 웨슬리(John Wesley, John Wesley, 1703–1791)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

7. 박해경, 「복음주의와 신학선교」(서울 : 아가페문화사, 2003), 17.

8. The essence of science is in its accuracy. If any scientific research is to be accurate it must not omit any data. Of anyone who engages in a scientific experiment he must give an equal weight to all data. Han Chul-Ha, “Theological Foundation of ACTS” ACTS Theological Journal 3 (March, 1986), 48.

여 왔으나, 칸트 이후 19세기와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든 지난 200여 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그릇된 방향의 성경관이 신학계와 교계를 지배하여 왔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칼빈처럼 성경의 신빙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관과 구원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성경관의 역사와 그리스도관의 상관관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주님의 증언을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함을 가르쳤다. 신약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의심한 불트만(Rudolf Bultmann)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sup>9)</sup>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케아 시대 교부들과 교회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쳤다. 성경을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 성경관과 성경 이해에서 나온 그리스도관은 당연히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한 인류의 중보자이심을 확신하였다.<sup>10)</sup>

### 2) 중세교회 시대

중세 로마 교회는 교권과 그 핵심인 교황권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둔다고 가르쳤다. 그 결과 그리스도관이 흐려지고 마리아 승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아니고 마리아를 제2의 중보자로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스콜라철학은 믿

9. 트래비스(Stephen H. Travis), 김근수 역, 「종말론 해설」(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86-97.

10.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1(Nashville, Tennessee : Abingdon Press, 1983), 70-82.

음과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성경관을 가져왔다. 트렌트 공의회(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 1563)는 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에 반대하고 로마 교회, 즉 자신들의 고행교리를 옹호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의롭다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것뿐이라든지, 이 확신에 의해서 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sup>11)</sup>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율법에서는 복과 저주(신 11: 26-28),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제시되었다는 모세의 증거를 오용하여, 이 복이 무용 무익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칭의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sup>12)</sup>

그러나 칼빈은 율법(정죄하는 율법)에서 떠나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다. 율법을 준수할 수 없기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이며 율법의 정죄에서 양심이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에 얻는다.<sup>13)</sup>

11. "If anyone saith that justifying faith is nothing else but confidence in the divine mercy which remit sin for Christ's sake alone ; or, that this confidence alone is that whereby we are justified, let him be anathema" (Sess. VI, Can. 12). John H. Leith ed., *Creeds of Churches : A Reader in Christian Doctrine from the Bible to the Present*(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63), 421.
12. Loraine Boettner, *Roman Catholicism*(Phillipsburg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2), 260-61.
13. "In substance, Moses declares that in the law is set down 'a blessing and a curse,' life and death(Deut. 11: 26) and hence they argue, either that blessing is become inactive and unfruitful, or that justification is not by faith only." *Inst. III*, xvii. 1.
1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I. xiii. 13. 이후로는 *Inst.*로 표기함.

### 3)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교회는 초대교회의 성경관으로 돌아가 신구약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였다.<sup>14)</sup> 그 결과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재확인하게 되었다.<sup>15)</sup> 그러므로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solus Christus)을 중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sola gratia, sola fide, sola scriptura)을 모토로 구원의 신학을 재확립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성경관이 사도들의 성경관과 일치한 진리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4) 자유주의신학

정통 기독교 안에서의 성경은 다른 문학 양식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리와 도덕의 원천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법을 제기하였다. 독일의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이신론 내에 이미 존재하던 사상을 발전시켜,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졌으며 때로는 내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성경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문학작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엄밀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의 열매임을 거부하게 하고, 영구불변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에 회의를 품게 하였다.<sup>16)</sup>

계몽주의 아래 칸트의 구원이 제거된 기독교 종교철학에 영향을 받아, 슐라이어마허, 제베르크, 리츨, 슈바이처 등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

14.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1(Nashville, Tennessee : Abingdon Press, 1983), vol. 3, 41–46.

15. Ibid., 135–38.

16.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Oxford : Blackwell Publishers Ltd., 1996), 85.

경에서 이른바 신화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sup>17)</sup> 이에 따라 성경의 신비스런 사건들은 대부분 신화로 취급되어 이를 제거한 결과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되고 단순한 사랑의 교사가 되고 말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 예수로만 보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 5) 신정통주의신학

바르트(K. Barth, 1886–1968)와 브룬너(E. Brunner) 등은 하나님의 타자성(otherness)을 강조함으로 자유주의신학의 인간중심사상을 반박하였다.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제1권은 하나님의 말씀, 제2권은 하나님의 교리, 제3권은 창조의 교리, 제4권은 화해의 교리, 제5권은 구원론(미완성)을 다룬다. 그러나 바르트의 성경관은 키르케고르(Kierkegaard)의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성경 이해로 인하여, 성경에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약화시킨다.<sup>18)</sup> 그 결과 선택교리의 왜곡과 함께 만인구원설(universalism)이라는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초래하고 있다.

### 6) 신자유주의신학

성경에서 이른바 신화를 제거하자는 자유주의신학의 성경관은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불트만은 비판하였다. 성경은 신화로 가득 차서 신화를 제거할 경우 성경에는 남는 것 없이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신화를 재해석하자는 성경관은 결국 성경에서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 사실에 기초한 생명의 복음을 공중누각과 같은 허상으로 해체시키고 말았다.<sup>19)</sup> 불트만의 성경관은 자유주의신학보다 더 교활하게 복음을

17. 김의환, 「현대신학해설」(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22–39.

18.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Intervarsity Press), 21–9.

19. Ian Henderson, *Rudolf Bultmann*(John Knox Press, 1970), 29–36.

교묘한 논리로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나아가 볼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사실상 부인하기에 이른다.<sup>20)</sup>

### 7)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humanism) 사조가 지난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는 모더니즘(modernism)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나, 20세기 말부터는 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포함하면서 극복하려는 관계다. 따라서 양자에는 연속성과 단절성(극복)이 동시에 존재한다.<sup>21)</sup>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다차원적 의미로써 극복을 시도한다.

모더니즘의 공리는 자율적 인간이성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사상체계 이기에 그 종교관은 칸트의 입장을 따라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도덕종교로서, 실체적 신개념을 거부한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공리는 다원성과 상대성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이다. 어떤 주장이나 입장도 다른 입장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는 다원성의 원리는 종교다원주의에 적용되고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극단적 상대주의 원리는 절대적 진리에 속할 계시까지도 상대화시켜 종교다원주의에 이른다.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신관은 범신론이 과정신학과 관계 맺고 나타난 자연주의적 유신론이다. 자연주의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창조자와 피조물을 혼동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혼합주의는(J. Hick처럼 모더니즘 형식이든 P. Knitter나 Raimundo Panikkar처럼 포스트모더니즘 형식이든) 성경을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위선적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성경의 진리인 ‘독생자’라는 말씀의 무력화를 시도한다.<sup>22)</sup> 이들은 예수님을 많은 종교

20. Ibid., 43.

21.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0), 421.

의 중보자들 중 하나로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중보자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sup>23)</sup> 이들 논리의 핵심은 이른바 신 중심주의 모델인 현대판 군주신론에 있다.<sup>24)</sup> 이들에게는 우주의 신이 있을 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성경에서 그 내용의 일부라도 가감하여 가르칠 때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귀중한 사명을 맡은 우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 된 말씀으로 믿고(딤후 3:16)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딤전 2:5)을 증거하는 주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신학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명백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성경관을 따라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참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신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한 칼빈의 성경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칼빈의 견해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듯

22. 폴 니터(P. F. Knitter),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6), 294–95.

23. Ibid., 313.

24. 이종성, 「그리스도론」(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65.

이, 범죄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참하나님을 보고 아는 데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 “노인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책을 한 권 건네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알아보지만 한두 단어도 바로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힘을 빌리면 명확히 읽기 시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데 모으고, 우둔함을 몰아낸 다음 참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sup>25)</sup>

칼빈의 성경관은 흄이 없고 맑은 안경처럼(서양철학과 신학이 안고 있는 주관주의나 객관주의의 양극단을 초월하여) 성경을 증명된 과학과 일치한다고 보고, 성경 자체의 증거 속에서 성경의 궁극적 권위를 찾으며 산 믿음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성경을 이해한다.

### 1) 자연과학적 증거

계몽주의 이후의 신학사조는 신학의 범위를 이성의 한계 내에 국한시키면서, 동시에 성경은 이성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이른바 성서비평학이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이성의 세계를 진술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성경말씀에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성경을 확증하려는 인간적인 증거는…… 결코 무익하지 않다.”<sup>26)</sup> 따라서 칼빈은 세계창조의 역사를 성경말씀의 증거와 다른 말을 하는 이집트인들의 자기네 고대기원을 반박한다.<sup>27)</sup>

25. *Inst.*, I. vi. 1.

2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I. xiii. 13.

27. *Inst.*, I. viii. 4.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성경은 증명된 자연과학 원리와 일치한다고 폴이 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 중의 하나는 성경이 자연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는 사실이다.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성경 속의 과학적 사실들이 최근에 와서야 이해되고 평가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원리들이 현대의 과학용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원리들이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것은 고대의 성경 기자들이 현대의 과학자들보다 자연을 훨씬 더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up>28)</sup>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틀레미(Ptolemy)는 1,056개의 별을 세었고, 브라헤(T. Brahe)는 777개의 별들을 분류했으며, 케플러(J. Kepler)는 별의 수가 1,005개라고 하였다. 사실 지구의 모든 지점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4,000개이다.<sup>29)</sup> 그러나 성경에서는 수천 년 전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렘 33:22)라고 말했고 또 ‘하늘의 별들’을 ‘바닷가의 모래’에 비유함으로 그 수의 많음을 나타냈다(창 22:17).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성경말씀처럼 비로소 하늘에는 최소한 10의 26승 개의 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모래알과 비슷한 수라고 한다. 이 수는 사람이 1초에 100을 센다고 하여도 100만조 년이 걸리는 단위이다.<sup>30)</sup>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서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또한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지구물리학(Geophysics)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하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때의 지식인들은 성경에서 둑근 지구라고 묘사해 놓은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sup>31)</sup> 그러나 성경은 “그는(하나님)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It is

28. 헨리 모리스, 「과학과 성경(Science and the Bible)」, 안효석 역(서울 : 크리스챤월드, 1989-94), 7.

29. Ibid., 7.

30. Ibid., 7-8.

31. Ibid., 9.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사 40:22)라고 말했다. 궁창(circle)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라키아’(khug)를 번역한 것으로 더 정확히 말해서 구상 혹은 원형을 가리킨다.<sup>32)</sup> 잠언 8:27에도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He set a compass upon the face of the depth)라고 쓰여 있다. 같은 히브리어(라기아)를 여기서는 ‘compass’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실 때 해수면을 원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33)</sup>

생물학(Biology)에 있어서도 윌리암 하비(William Harvey)가 피의 순환법칙을 발견한 것은 1616년이다. 그러나 이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와 성경의 여러 부분에는 피가 생물학적 메카니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몸의 세포에 산소와 물과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잘 알려져 있다. 이 필수적인 기능은 피가 끊임없이 몸을 도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가 병을 유발하는 유기체와 싸우고, 상처받은 조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가장 놀라운 발견 중의 하나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생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설명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놓으셨다. 이 과학적 진리는 원래 더욱 중요한 영적 진실(죄를 사하는 데 왜 회생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지)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하).

이러한 몇 가지 과학적 사실만 보아도 칼빈이 성경의 진리는 이성적, 과학적인 증거에서도 오류가 없음을 주장한 사실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진보주의신학이 성경을 이성의 한계 안에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성경말씀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가정하고 성경을 변조나 위조문서 정도로 보는 데 대한 경고를 칼빈은 이미

32. Ibid., 9.

33. Ibid., 9.

보내고 있는 것이다.

## 2) 성경 자체의 증거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신빙성은 이성적인 자연과학적 증거로도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권위를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말씀과 그 내용에서 찾는다.

첫째, 칼빈은 디모데후서 3:16 주석을 통하여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고, 그 신빙성과 권위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입 자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였다.<sup>34)</sup> 특히 디모데후서 3:16은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자증하는 핵심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성경’은 정관사 없이 쓰였으므로 구약과 기록된 그리고 기록 중에 있는 신약성경도 포함된다고 본다. ‘모든’은 집합적 개념으로 전체(all)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모든 성경이 영감된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서술적으로 해석함이 문맥에 맞으며(한정적이 아닌),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성경 전체(66권)가 하나님의 성령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sup>35)</sup>

둘째, 칼빈은 성경의 진정한 권위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서 찾는다.<sup>36)</sup>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

34.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T. A. Smail(Michigan : Eerdmans, 1964), 328.

35. 박형용, “문법적 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집 제2권(1984), 30.

36. *Inst.*, II, viii, 5.

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sup>37)</sup>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신성(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르베투스(Servetus)는 군주신론(Monarchianism)을 넘어서서 ‘범신론’으로 흐르고 있음을 칼빈은 지적하였다.<sup>38)</sup> 이것은 다가올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문제 삼을 것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자들의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예견하고 미리 경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3)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의 사회과학적 증거

칼빈의 성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의 사회과학적 증거이다. 즉, 성경은 산 믿음의 신학원리를 제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과 함께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사회생활의 원리를 더불어 제공한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의 기초로 내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과 함께 행위도 칭의(稱義)에 도움을 준다는 로마 스콜라 철학자들의 궤변을 철저히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신자의 행위의 위치를 중요시한다. 선행(善行)은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되 분리하지는 않는다.<sup>39)</sup> 이것은 칼빈이 로마 교회의 혼합주의

37. *Inst.*, I. xiii. 4.

38. *Inst.*, I. xiii. 22.

39. 칼 바르트도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의 견해를 따라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또한 양자를 혼동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은혜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관계에 대한 칼케돈 신조(Chalcedon Creed)의 규정(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and without separation)을 따라서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해명

에 빠지지 않으면서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보다 발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40)</sup>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성화(Sanctification)를 칭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기독교 강요」 제Ⅲ권 14장 이하에서 선행론을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으며, 성화를 본질적으로 중생을 통한 자기 부인의 삶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sup>41)</sup>

따라서 칼빈은 ‘율법의 제3사용법’을 중요시하며 율법은 신자들의 삶의 지침과 안내자가 되어, 믿는 자들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42)</sup>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양심에 관계할 수 없을지도, 동시에 율법은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한다.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친다. 즉, 율법은 구약 시대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이후에도 계속 언약 백성들에게 생활규범, 곧 성화의 표준으로서 유효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거룩하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sup>43)</sup>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전 4:7; 엡 1:4; 살전 4:3). 이때에 신자들에게

한 것이기도 하다. Karl Barth,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Church Dogmatics*, vol. IV-2, trans. G. W. Bromiley(Edinburgh : T. & T. Clark, 1978), 501-505. The Chalcedonian Definition of the Christian Faith(451)에 관하여 참고할 자료는 Alister E. McGrath ed., *The Christian Theology Reader*(Oxford : Blackwell Publishers, 2001), 269-70.

40. Alfred Göhler, 유정우 역, 「칼빈의 성화론」(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5-6.

41.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이형기 역, 「칼빈의 신앙교육서」(고양 : 크리스챤라이제스트, 2001), 44.

42. *Inst.*, II, vii, 12. 루터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제1의 용법)을 한다는 설명에 머물고 있다.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서울 : 성서연구사, 2000), 25.

43. 권애희,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의 위치”(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2), 83.

의무를 알려 주며 거룩과 결백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는 것은 제3사용법으로서의 율법이 하는 일이다.<sup>44)</sup> 따라서 선행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선행을 강조한 야고보의 조화로 성경을 이해한다.<sup>45)</sup> 누구든지 “야고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도록 야고보의 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령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었다고 언급하신다(롬 4:3; 갈 3:6). 우리도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이 야고보를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성립된다고 가르친다.”<sup>46)</sup>

이러한 ‘산 믿음의 신학’을 말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칼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칭의)과 행함(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칼빈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전적으로 무력한 것으로 버려져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완전이란 기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간주하였다는 것이다.<sup>47)</sup> 사실 이러한 일부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오해

44. *Inst.*, III, xix, 2. Philip Melanchthon도 율법의 제3사용법을 강조하고 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용법)는 신자가 된 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 그들에 대하여 ‘내가 나의 율법을 그 마음에 두며’라고 하신 그 사람들(렘 31:33, 32:37-41; 히 8:8-12)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빛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에서 율법은 필수적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에 대한 중언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Philip Melanchthon, *Loci Communes*(1555), 이승구 역, 「신학총론」(고양: 크리스챤라이제스트, 2000), 258-59.

45. *Inst.*, III, xvii, 11.

46. *Inst.*, III, xvii, 11.

47. *Ibid.*, 15.

는<sup>48)</sup> 오늘의 교회의 신학과 신앙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성경관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제시한 살아 있는 신앙에 일치하는 신학에 기초한 성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원리를 제시함과 더불어,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사회생활의 원리를 제공한다. 성경의 사회과학적 원리를 적용할 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과학적 분야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그 행복의 기준도 인자와 진리요, 하나님 경외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잠 3:3-8)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성경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도 정확하고 오류가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사회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면 인권이 회복되고(빛 때문에 종 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고) 경제적 안정(토지 무르기와 빛 탕감)을 누구나 모두 누리게 되며 자연질서를 유지하여 생명 환경 문제도 야기되지 않는다(레 25장).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식민지 쟁탈이나(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국제 재벌기업의 등장을 방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전쟁도 방지되어 국가간의 평화도 유지될 것이다(레 25장; 행 2:37-47).<sup>49)</sup>

#### 4. 맷음말

요약하면 오늘의 세계는 정치, 경제, 윤리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

48. 1910년대 이후 근본주의신학의 흐름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고등비평과 진화론과 같은 인본주의 사조에 대항해서 복음주의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잘하였으나, 인간 본성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부정적이 되었다.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26-7.

49. cf. 로널드 웰즈,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서울: IVP, 1995); 대천덕, 헨리조지, 「토지와 자유」(서울: 생명의 샘터, 1985).

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 위기의 근원적 원인은 근대 이후 세계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서양제국들이 성경말씀을 불신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칸트에서 시작된 이른바 계몽주의 사조에 영향받은 인본주의 신학의 배도적 성경관에 물든 서양의 신학사조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아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성경관의 재정립이 구원의 신앙 확립과 더불어 세계적인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임이 확실해진 이상, 지금 우리는 사도적인 성경관의 소유자요, 현대 세계의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한 칼빈의 성경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관의 역사와 그리스도관의 역사를 간단하게 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주님의 증언을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함을 가르쳤다. 성경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 성경관과 성경 이해에서 나온 그리스도관은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한 인류의 중보자이심을 확신하였다.

중세 로마 교회는 교권과 그 핵심인 교황권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둔다고 가르쳤다. 그 결과 그리스도관이 흐려지고 마리아 승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마리아를 사실상 제2의 중보자로서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교회는 초대교회의 성경관으로 돌아가 신구약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결과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계몽주의 아래 칸트의 구원이 제거된 기독교 종교철학에 영향을 받아 술라이어마허, 제베르크, 리츨, 슈바이처 등의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에서 이른바 신화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성경의 신비스런 사건들은 대부분 신화로 취급되어 이를 제거한 결과 예수님이 신성이 거부되고 단순한 사랑의 교사가 되고 말았다.

바르트와 브룬너 등은 하나님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중심사상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르트의 성경관은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성경 이해로 인하여, 성경에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약화시키고 구원관의 왜곡을 가져왔다.

성경에서 이른바 신화를 제거하자는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은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불트만은 비판하였다. 성경은 신화로 가득 차서 신화를 제거할 경우 성경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신화를 재해석하자는 성경관은 결국 성경에서 소위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 사실에 기초한 생명의 복음을 공중누각과 같은 허상으로 해체시키고 말았다.

인본주의 사조가 지난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는 모더니즘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나, 20세기 말부터는 주로 포스트모더니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포함하면서 극복하려는 관계다. 따라서 양자에는 연속성과 단절성(극복)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다차원적 의미로 극복, 사도한다.

모더니즘의 공리는 자율적 인간이성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사상체계이기에 그 종교관은 칸트의 입장을 따라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도덕종교로서, 실체적 신개념을 거부한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공리는 다원성과 상대성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이다. 어떤 주장이나 입장도 다른 입장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는 다원성의 원리는 종교다원주의에 적용되고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많은 종교의 중보자들 중 하나로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중

보자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 이들의 논리의 핵심은 이른바 신증심주의 모델인 현대판 군주신론에 있으며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성경에서 그 내용의 일부라도 가감하여 가르칠 때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성경관을 따라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참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신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한 칼빈의 성경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의 성경관은 흄이 없고 맑은 안경처럼 성경을 증명된 과학과 일치한다고 보고, 성경 자체의 증거 속에서 성경의 궁극적 권위를 찾으며, 산 믿음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의 증거를 증명된 자연과학과 일치시키는 칼빈의 성경 이해는 성경의 진리를 초등과학보다 못하게 보는 불신앙적인 과학자들과 이에 종속되는 신학자들을 격파한다. 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권위는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영감된 말씀과 그 내용, 즉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서 찾는 칼빈의 성경관은 칸트에서 시작된 이원론적이고 비과학적인 신학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궤변을 극복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산 믿음의 신학원리를 제시함으로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사회생활의 원리를 더불어 제공하는 칼빈의 성경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